

'에브리씽', 미국 배우조합상 4관왕

아시아계 배우들 호연으로 주목을 받은 SF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하 '에브리씽')가 지난달 26일 미국배우조합(SAG)이 주최한 영화 시상식에서 4관왕에 올랐다. '에브리씽'은 미국제작자조합(PGA)의 작품상과 감독조합(DGA) 감독상에 이어 배우조합상까지 휩쓸면서 아카데미상 레이스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로 떠올랐다.



▲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한 장면. 여우주연상을 받은 양자경(가운데). 사진=A24

'에브리씽'은 이날 LA에서 열린 제29회 SAG 어워즈에서 출연 배우진 전체에 수여하는 최고상인 '아웃스탠딩 퍼포먼스 바이 어 캐스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에브리씽'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중국계 이민자 여성이 세상을 구한다는 줄거리를 다중우주(멀티버스) 세

계관으로 엮어내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이 영화 출연 배우들은 남녀 주요 연기상 3개도 휩쓸었다. 말레이시아 출신 배우 양자경은 여우주연상을, 베트남계 미국 배우 키 호이 판은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악역을 맡은 제이미 리 커티스는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SAG 어워즈의 영화 부문에서 아시아계 배우가 여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감독·제작자·배우 조합의 최고상을 휩쓴 역대 영화 중 오스카 작품상을 놓친 사례는 론 하워드 감독 '아폴로 13' (1995)이 유일하다."며 " '에브리씽'이 거의 확실하게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을 향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저스틴 비버, 안면마비 악화로 월드투어 취소

팝스타 저스틴 비버(29)가 건강 문제로 한 차례 연기했던 월드투어 공연을 모두 취소했다.



▲ 건강 문제로 월드투어 공연을 취소한 저스틴 비버. 사진=instagram(justinbieber)

1일 미국 매체 페이지 식스에 따르면 비버의 월드 투어 '저스티스'는 비버의 안면마비 악화로 모든 공연 일정을 전면 취소됐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워싱턴등에서 예정됐던 미국 공연도 포함됐다.

비버 측은 "모든 티켓은 환불 처리되며, 문의는 구매처를 통해 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비버는 작년 6월 람세이 헌트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안면 마비로 고통받고 있음을 팬들에게 밝힌 뒤 공연을 연

기한 바 있다. 람세이 헌트 증후군은 안면신경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해 손상돼 발생한다. 표정 근육에 영향을 줘 안면 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다.

앞서 비버는 지난 2019년 정신 건강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음악 활동 휴식에 들어갔다. 비버는 "휴식을 취하는 동안 의사와 가족들과 상의를 거친 끝에 투어를 계속하기 위해 유럽으로 갔다. 이후 6번의 라이브 공연을 했지만 너무나도 힘들었다."면서 "지난주 브라질 리우에서

공연하고 무대에서 내려온 뒤 탈진고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걸 깨달았다. 쉬고 더 나아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엘튼 존, 찰스3세 대관식 공연 '사절'



▲ 무대에서 공연중인 엘튼 존. 사진=foxcarolina.com

엘튼 존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 콘서트 공연 초청을 거절했다.

영국 출신 유명 가수이자 작곡가인 엘튼 존은 그간 왕실 공연의 섭외 1순위로 꼽혔으나 유럽투어 일정을 이유로 대관식 콘서트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셜미디어(SNS)에선 공연은 핑계일 뿐 일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엘튼 존이 찰스 3세와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로 15년 만에 이혼한 고 다이애나비와 각별한 사이였다는 점에서다. 그는 1997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다이애나비를 기리기 위해 편곡한 '캔들 인 더 윈드'(Candle in the Wind)를 장례식에서 직접 불렀다. 그는 2018년 해리 왕자와 매건 마클의 결혼식에서도 이 곡을 연주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찰스가 대답하게도 엘튼 존에게 대관식에서 '캔들 인 더 윈드'를 불러 달라고 했다고?"라고 비꼬기도 했다.

엘튼 존 외에도 영국 출신 유명 가수 아델과 에드 시런, 해리 스타일스, 로비 윌리엄스, 걸그룹 스파이스 걸스 역시 다른 일정 등의 이유로 대관식 참석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관식 행사는 오는 5월 6~7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백천 운명철학원

뉴욕, 맨하탄에서 20년 만에 Laguna Woods, Irvine으로 이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선생



백천 선생(白泉 先生)

한국역술인협회 미주지구 회장
국제 예언가협회 이사장
1976. 한국역술인협회 정회원
1977. 대한 경심연합회 중앙감찰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2008. 한국 역술인협회 부회장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신재사공초재이방택이아상
수주합혼혼사향일름호호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예정운/ 부부운/ 자녀운/ 직업운/ 사업운/ 재물운/
학업운/ 주택구입시기/ 이사운/ 집매매운/
풍수지리/ 방향/ 건강운/ 대인관계/ 동업운/
관재/ 소송/ 삼재풀이/ 방책예방/
*부부 특별 상담 (숫자운)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 전화상담만 받습니다.

전화(213) 500-6363
상담(909) 347-0505

*Zelle 또는 Venmo로 송금해주세요.

2381 Via Mariposa W #2h, Laguna Woods, CA 92637